



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

| 투자전략/시황 Analyst 한지영, RA 유지윤



키움증권

미 증시, 미-이란 전쟁 불안에도, 반도체주 동반 급등 효과 등으로 강세

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

21일(화) 미국 증시는 미-이란 갈등 지속에 따른 WTI 2%대 강세, 미국 10년물 금리 상승 부담에도, GM(+4.9%), 3M(+7.3%) 등 주요기업들의 호실적, 마이크론(+12.0%), 샌디스크(+14.2%) 등 반도체주에 대한 낙관론 회복 효과에 힘입어 상승 마감(다우 +0.7%, S&P500 +0.9%, 나스닥 +1.3%,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+5.2%).

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공방전에 이어,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봉쇄 선언 등 중동발 불확실성이 증시에 노이즈를 계속 주입시키고 있는 모습. 그러나 이날 주식시장의 강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, 중재국의 휴전 제안, 전쟁 당사국가들의 외교채널 유지 등을 고려 시 사태의 추가 악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임. 더욱이 현재 시장에서는 전쟁, 매크로보다는 실적시즌에 주가의 무게중심이 형성됐다는 점도 중동 사태의 주가 영향력을 낮추는 요인.

이제 시장은 내일 미국 장 마감 후 발표되는 알파벳 실적 이벤트에 집중할 예정. 7월 이후 증시 조정은 반도체와 AI를 둘러싼 실적 논란에서 시작된 만큼, 이번 알파벳 실적은 AI 수요 가시성을 재점검하는 첫번째 이벤트가 될 전망. 우선 2026년 CAPEX 가이드نس(지난 1분기 당시 1,850억달러로 제시)와 2027년 투자 확대 기조 재확인 여부가 HBM 및 서버용 DRAM 수요 변화를 가능하는데 중요한 변수.

본업인 클라우드 사업이 고성장세를 지속할 수 있는지(컨센 63% vs 1분기 +63%, QoQ)도 관건. 시장은 이들이 막대한 CAPEX 확대에 대한 지속성 및 수익화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. 2분기에도 본업 성장률이 견조하다는 점을 확인시켜준다면, AI 수요가 일시적인 선구매 및 공급 부족을 넘어 실제 고객들의 사용 증가로 연결되는 신호로 작용할 전망. 이는 반도체를 포함한 증시 전반에 걸친 위험선호심리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의 실적의 의존도는 지난 1분기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.

전일 국내 증시는 미-이란 지정학 불확실성 완화 기대감 속 미국 반도체주 강세, 환율 부담 완화, 낙폭과대 인식 등에 힘입어 반도체, 전력기기 등 주력 업종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반등에 성공(코스피 +3.6%, 코스닥 +0.5%).

금일에는 중동발 불확실성에 따른 유가 상승 부담에도, 미국 반도체주 동반 급등, 코스피200 야간선물 4.0%대 강세, 주 후반 자동차, 은행 등 국내 2분기 실적시즌 기대감 등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일 전망.

물론 높은 레벨의 VKOSPI(21일, 84pt), 단일종목 레버리지 거래 급증(21일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코스피 전체 거래대금 비중 43.5% = 레버리지 29.6% + 인버스 13.9%) 등이 금일에도 장중 변동성 확대 압력은 높일 것으로 보임. 이는 시장의 피로감을 가중시키면서, “반등 시 매도를 통한 기존 손실분 축소” 전략을 유도할 소지가 있음.

그러나 7월 중 금융위기, 팬데믹 등 대형 위기급의 급락을 맞은 점이나, 밸류에이션상 진입 매력(21일 선행 PER 5.7배)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되새겨볼 시점. 현재 지수 레벨이 최근 약재성 노이즈(메모리 피크아웃 및 이익 추정치 하향, AI 수요 불안 등)을 주가상으로 대부분 소화한 영역에 진입했음을 시사. 금주 후반부터 차주까지 알파벳 등 미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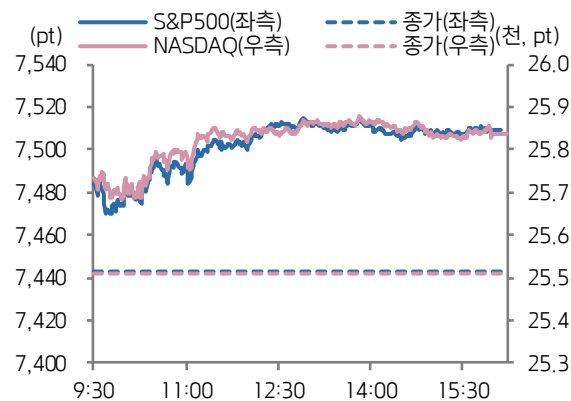
빅테크, 국내 반도체주 실적 및 컨퍼런스 콜을 통해 분위기 반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해볼 부분.

외국인의 수급도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마찬가지. 7월 2주차까지 3주 연속으로 코스피를 순매도했던 외국인(3주 누적 -40조원)은 지난주부터 2주 연속 순매수를 기록(2주 누적 +1.0조원). 증시 폭락을 주도했던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도 이번 주에 약 9,000억원 순매수하면서 12주 만에 처음으로 순매수로 전환한 상태.

MSCI 한국 ETF(EWY)에서도 지난주 30억달러(약 4.4조원)가 유입되면서 역대 최대 주간 유입을 기록한 점도 눈여겨 볼 필요. 아직 완전히 순매수로 방향을 잡았다고 확정하기에는 이르지만, 반도체 중심의 한국 증시에 대한 차익 실현 및 비중 축소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기 때문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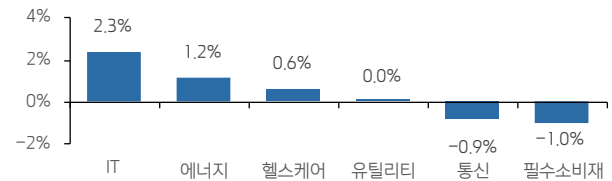
결국, “반등 시 매도” 전략은 후순위로 두는 것이 타당. 이보다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최소한 차주까지 홀딩 혹은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더 나은 선택지라고 판단. 또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지속되고 있는 유통(6주 연속), 자동차(4주 연속), 건설(4주 연속), 소프트웨어(4주 연속)와 같은 업종(낙폭 과대 + 실적, 정책 기대감 베팅 성격)도 수익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전략에 반영해볼 필요.

S&P500 & NASDAQ 일중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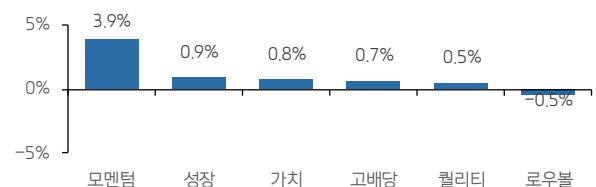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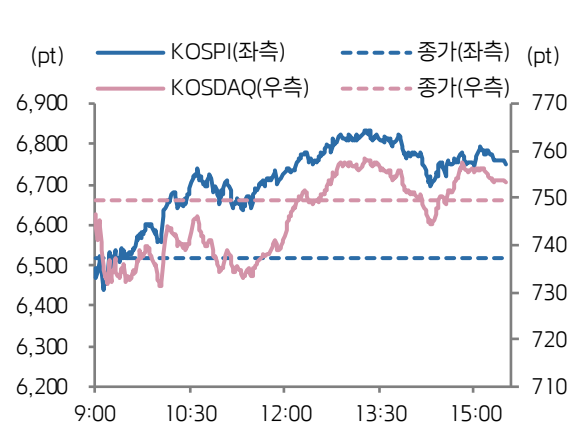


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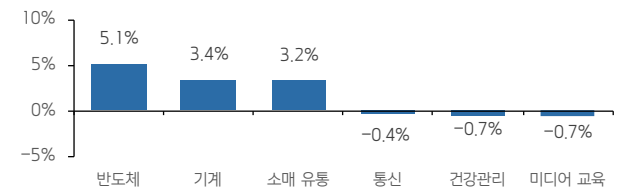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KOSPI & KOSDAQ 일중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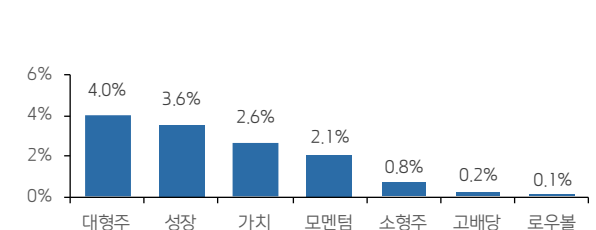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주요 종목

종목	종가	DTD(%)	YTD(%)	종목	종가	DTD(%)	YTD(%)
애플	327.74	+0.35%	+20.55%	GM	79.52	+4.91%	-2.21%
마이크로소프트	397.75	-1.13%	-17.76%	일라이릴리	1,175.41	+2.49%	+9.37%
알파벳	347.15	-1.38%	+10.91%	월마트	110.39	-1.61%	-0.92%
메타	643.81	-0.32%	-2.47%	JP모건	345.23	+1.88%	+7.14%
아마존	247.55	-0.98%	+7.25%	엑손모빌	151.71	+2.26%	+26.07%
테슬라	378.93	+2.53%	-15.74%	세브론	191.07	+0.72%	+25.37%
엔비디아	207.29	+1.97%	+11.15%	제너럴일렉트릭	110.39	-1.6%	-0.9%
브로드컴	386.50	+2.21%	+11.67%	캐터필러	889.97	+2.97%	+55.35%
AMD	544.43	+8.11%	+154.22%	보잉	204.80	-2.23%	-5.67%
마이크론	970.82	+12.17%	+240.15%	넥스트에라	87.93	-0.1%	+9.5%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,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

주요 지수

주식시장				외환시장			
지수	가격	DTD(%)	YTD(%)	지수	가격	DTD(%)	YTD(%)
코스피	6,747.95	+3.56%	+60.13%	USD/KRW	1,481.80	+0.25%	+2.94%
코스피200	1,073.39	+3.96%	+77.13%	달러 지수	101.18	+0.23%	+2.91%
코스닥	753.34	+0.49%	-18.6%	EUR/USD	1.14	-0.14%	-2.96%
코스닥150	1,276.35	+0.13%	-17.51%	USD/CNH	6.77	+0%	-2.96%
S&P500	7,509.20	+0.89%	+9.7%	USD/JPY	163.17	+0.41%	+4.12%
NASDAQ	25,837.21	+1.29%	+11.17%	채권시장			
다우	52,224.64	+0.74%	+8.66%	가격	DTD(bp)	YTD(bp)	
VIX	17.05	-8.58%	+14.05%	국고채 3년	3.866	-3.1bp	+91.5bp
러셀2000	2,987.40	+1.53%	+20.37%	국고채 10년	4.330	-1.2bp	+94.5bp
필라. 반도체	12,356.16	+5.21%	+74.44%	미국 국채 2년	4.262	+5.5bp	+78.9bp
다우 운송	22,667.38	+0.93%	+30.59%	미국 국채 10년	4.628	+3.6bp	+46.1bp
상해종합	3,864.37	+1.79%	-2.63%	미국 국채 30년	5.131	+1.9bp	+28.8bp
항생 H	8,360.68	-0.25%	-6.2%	독일 국채 10년	3.163	+1.3bp	+30.8bp
인도 SENSEX	77,470.11	-0.31%	-9.09%	원자재 시장			
유럽, ETFs				가격	DTD(%)	YTD(%)	
Eurostoxx50	6,285.63	+0.94%	+8.53%	WTI	84.34	+2.26%	+47.94%
MSCI 전세계 지수	1,117.08	+1.05%	+10.1%	브렌트유	91.01	+2.01%	+49.56%
MSCI DM 지수	4,793.31	-0.3%	+8.19%	금	4,076.40	+1.51%	-8.2%
MSCI EM 지수	1,616.90	-0.23%	+15.13%	은	58.84	+3.58%	-16.67%
MSCI 한국 ETF	172.90	+6.16%	+77.84%	구리	651.10	+3.37%	+14.59%
디지털화폐				BDI	2,671.00	-2.94%	+42.3%
비트코인	66,383.82	+1.62%	-24.26%	옥수수	475.25	+0.48%	+3.2%
이더리움	1,922.35	+0.95%	-35.44%	밀	678.00	+0.59%	+24.23%
				대두	1,222.75	-0.29%	+14.87%
				커피	322.10	-0.75%	+0.61%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,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

Compliance Notice

- 당사는 7월 21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고지사항

-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-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. -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·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.